

설날민심 '野전인수' ... 여차하면 '與부지리'



설 연휴기간 호남에서 민생투어를 진행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부인 최명길씨와 함께 지난 30일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장현 공동위원장(맨 오른쪽)이 지난 30일 광주 북구 용봉동 '에포케' 문화공간 동부소방서를 찾아 특별근무중인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 김한길 대표 호남서 세배투어 '텃밭 사수' "똑바로 하면 다시 기대한다는 분위기" 자신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 등 호남에서 민생투어를 이어가며 '텃밭 사수'에 '올인' 했다.

김 대표가 설 연휴를 모조리 반납하고 호남 민심 다지기엔 나선 것은 다분히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가족들이 모이는 설 연휴에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 민심'을 집중 공략함으로써 등 돌린 호남민심을 잡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여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안철수 바람'을 잠재우겠다는 포석이다.

김 대표의 호남 방문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다.

김 대표는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전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당 지도부, 부인 최명길씨와 함께 용산역을 찾아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에게 귀성 인사를 한 뒤 청주 방문에 이어 곧장 광주로 이동해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김 대표 부부는 주요 여성 인사와 만난 간담회를 가진 뒤 지하철 상무

역 대합실에서 지역민과 함께 '국민들께 세배드립니다'라는 주제로 '김한길·최명길의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 김 대표 부부가 함께 토크 콘서트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콘서트에서 김 대표 부부는 150여 명의 시민에게 큰절을 올린 뒤 시작했으며,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호남에서 요구하는 변화에 망설이지 않겠다"며 "고통이 있더라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호남의 요구에 몸을 던지겠다는 결기와 각오를 보여주었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안 신당'의 정치혁신과 새 정치를 향한 경쟁이 결과적으로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선의의 경쟁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안겨줘 새 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를 더 공고하게 만드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토크 콘서트를 마친 김 대표 부부는 광주에서 1박을 한 뒤 30일에는 남광주시장과 소방서·치안센터, 양로원 등을 방문하고, 광주시장 상무위원과 기독교 교단협의회와의 간담회

를 가졌다. 이어 30일 저녁에는 여수로 이동해 1박을 하고 항일암 해맞이 행사에 참석한 뒤 광양과 담양 등을 차례로 둘러 명절을 찾아 고향을 찾은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하며 민심 다지기에 주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호남에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대표가 부인까지 대동해 지역을 방문한 것은 겸허한 자세로 민심을 들겠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한편, 김한길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안철수의 원이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새정치신당'과 당장은 연대보다는 혁신 경쟁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설 민심을 전하면서 "정치 혁신, 새 정치 찾고 신당과 경쟁하는 것도 좋지만 새 정치의 경쟁이 구태정치와 전횡의 새누리당을 도와주는 것이어서 안 된다"고 말문을 열어놓았다.

김 대표는 이어 "이번 호남방문에서 정말 민주당이 똑바로 하겠다면 다시 기대해보겠다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게 제게는 가장 큰 세뱃돈이었다"며 "텃밭 사수"의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안철수 신당 중앙당 창준위 발기인 300명 선 "지지도 높은 호남 등 7곳 시·도당 먼저 발족"

"3월 창당"을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한 발기인 규모를 300명 안팎으로 잡고 명단 작성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측 인사는 2일 "법적 요건인 200명을 크게 넘기지 않고 빨리하고 해서 창준위 결성 일정을 앞당긴 만큼 300명 안팎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안 의원 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각 시·도 조직에서 상징적 인물을 평균 10명가량 선정하고 서울에서 나머지 인원을 선정해 중앙당 창준위 발기인을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추는 이 가운데 정치 영역에서 상대적 소외층으로 분류된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일정 인원을 할당할 계획이지만 여성 인사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윤여준 의장은 "많이 모시던 모실수록 좋지만 여성분들을 모시기가 쉽지 않다"며 "지방에는 아직도 사회적 활동하는 여성분이 많지 않아서 특히 더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창준위는 원톱 대신 공동위원장 제로 운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추는 3월 말 창당까지 17개 시·도당을 모두 발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준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 7곳을 먼저 발족하고 정식 창당 이후 나머지 시·도당을 순차적으로 창당한다는 방침이다.

창당에 필요한 법적 기준은 최소 5곳 이상이 된다. 이들 7곳은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호남 3곳과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제주 중 현실적 여건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강원도나 대전, 충남·북 지역은 조직 활동이 최근 본격화한 터라 상대적으로 시·도당 준비 작업이 더딘 상태다.

새정추는 신당이 지향하는 정치철학 등을 담은 '새정치 플랜'의 밑그림도 최근 완성했으며 최종 내부 토론을 거쳐 조만간 서울에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새정추는 창당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자 3일엔 추진위원 8명과 각 당장, 공동위원장이 함께 하는 전체회의를 연다.

민주당에 회초리·安신당엔 실망감

강기정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전한 설 민심 시장·지사 출마 예정자들 민심잡기 뜨거운 경쟁

6·4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출마 예정자들의 설 연휴기간 민심잡기 경쟁이 뜨거웠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사실상 광역단체장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른 것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설 연휴기간 민생활동 접점에 중점을 두고 강행군을 펼쳤다. 강 시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D) 방역초소, 소방안전센터, 치안센터 등을 찾아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등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현장 점검에 시간을 할애했다.

또한, 광주공원 내 '사랑의 쉼터'를 찾아 노인들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고, 시청 문화광장 야외스케이트장을 방문해 안전관리와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넓혀갔다.

오는 5일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설 연휴기간 소외된 이웃을 찾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2박3일 희망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이 기간 발마우 시장 등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광주드림마스터를 방문해 환자들을 위로했다.

이어 미혼모 시설인 인애복지원을 찾아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광주 공원교회에 주회한 '어르신 점심 무료배식'에도 참여하는 등 바빠 민심잡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장현 공동위원장은 광주 거주 외국인들과 대학생들을 만나 '광주 공동체 건설'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설 연휴 첫날인 광주 거주외국인과 함께하는 2014년 새해맞이 아시아 문화교류행사에 참석해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인류에 살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오후에는 전남대 후문에 위치한 청춘문화공간 '에포케'에서

취업준비생들과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 난장을 펼치며 '젊은 층' 표심을 공략했다.

전남지사 출마 예정자들도 광복행보를 하며 민심잡기에 주력했다.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설 연휴 첫날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민과 상인들을 직접 만나 서민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살피는데 주력했다. 또한, 최근 AI 사태로 판매량이 급감한 닭과 오리 소비 촉진을 위해 영광의 한 오리고기 식당에서 오리고기 시식회를 갖기도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여수 기름유출 현장방문해 직접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등 지난달 20일 출마선언 이후 '바닥 민심' 잡기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설 연휴기간 재래시장과 경로당, 여수 기름유출 사고 현장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설 민심 탐방 행보를 이어갔다.

주 의원은 설 연휴기간 광주·전남을 찾은 김한길 대표와 함께 여수와 광양, 담양 등을 돌며 민심 청취를 했고, 여수시민과의 토크 콘서트, 여수 항일암 해맞이 행사, 포스코 광양제철 근로자 배식행사, 여수 기름유출사고 방제현장을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민심잡기에 주력했다.

한편, 강기정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설 연휴 광주 민심을 "박근혜 정권은 포기, 안철수 세력은 실망, 민주당에게는 회초리"라고 요약했다.

강 의원은 설 민심을 들어보니 "광주시민들은 야권의 분열을 걱정하며 민주당의 단결을 넘어 더 큰 단결을 주문했으며, 특히 안철수 세력이 새누리당과의 입전보다는 민주당과 호남에만 집중하는 모습에 실망감이 컸다"고 전했다.

학교설립 60주년 (1954~2014)

60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선거사무소·어깨띠·명함 사용 가능 ... 직접 통화 지지호소도

■ 예비후보자 등록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부터 5월1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22일~6월3일)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지난 2004년에 도입됐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

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이름·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을 적은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전화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문자메시

지(후보자 때를 포함해 최대 5차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가 정한 범위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할 수 있으며, 선거공과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해 판매할 수 있는 등 120일 동안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입후보하려면 3월6일(선거일 전 90일)까지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이베임을 보내는 방법으로 교육감을 할 수 있다. 교육의원이 같은 지자체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사직할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단체장에 입후보하려면 후보자등록 기간인 5월15일 전까지 시작하면 된다. 이밖에 올해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면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한편, 시·도 의원과 구청장·시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1일(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선거는 3월23일(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각각 시작된다. 구·시의원 선거는 아직 정계특위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단계로, 예비후보자 등록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나서 17일이 지난 후부터 진행된다.

과학기술인들의 든든한 협력자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G.S.T.E.C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는

- 단체 행사와 각종 편의시설을 운용하며
- 국비지원 수탁사업을 실시합니다.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는

광주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행사가능시설

- 레스토랑 : 150석규모, 다양한 메뉴, 저렴한 가격
- 각종 규모 회의실 : 10석이상 최대 130석, 가변형 등 총 450석 규모의 회의실, 5개 회의실 보유 (라마다호텔 위탁운영)
- 숙박시설 : 총 31실(양실, 한실)
- 다양한 편의시설 : 헬스클럽, 사우나, 은행, 편의점 등







G.S.T.E.C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Gwangju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학로 339 | T.062)609-0500~1, F.062)609-0521
문의 및 예약
062)609-0500~1